

2024년
고3
11월 수능

2024년 시행 고3 11월 수능 국어 문학 | 정을선전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두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

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 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 왈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북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꿇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 하나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므로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처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A]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수능 변형 문제

1. ㉠, ㉡과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는 무관하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과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해방감을 느꼈겠군.

수능 변형 문제

2.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심정을 고사를 인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시비를 문초하던 인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다른 남자와 사통하였다는 것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수능 변형 문제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인물A | 인물B | 소통의 내용 |
|---|-----|-----|---|
| ① | 원수 | 중군장 |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치고 백성을 진무하라고 명함. |
| ② | 승상 | 월매 | A가 B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음. |
| ③ | 월매 | 옥졸 |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
| ④ | 월매 | 승상 |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
| ⑤ | 왕비 | 승상 |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

수능 변형 문제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 ① 왕비가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정을선의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승상이 정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월매의 모습은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총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상은 정렬부인에 대한 처벌을 유보하였다.
- ② 정렬부인은 총렬부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병든 체하였다.
- ③ 금섬은 총렬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④ 옥졸들은 옥에서 발견된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였다.
- ⑤ 금연은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놈’의 목숨을 빼앗았다.

6.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적인 장면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세밀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사건이 진행되면서 서술자를 바꾸어 서술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과 성격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7.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사보다 공적 의무를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문 내의 문제를 사사로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 ③ 징악과 권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자신이 행한 행위의 원인을 밝히며 인물이 당한 고초를 황상에게 밝히고 있다.
- ⑤ 책임을 인정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8~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번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걸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 전에 뵈은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 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음소서.”

하며 왈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 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조**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꿇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 하나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날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 묘사를 통해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공간의 급속한 전환을 통해 긴장감을 이완하고 있다.
- ③ 초월적 인물을 통해 등장인물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 중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왕비는 총렬부인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월매를 문초하였다.
- ② 승상은 복록을 잡아들여 옥중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물었다.
- ③ 총렬부인은 정렬부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을 모른 채 그녀를 간호하였다.
- ④ 왕비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⑤ 승상은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대도독에게 맡긴 후 필마로 집에 돌아왔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을선전」에서 여주인공은 대립적 위치에 있는 악한 인물의 계략과 모함에 의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며, 남주인공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는 악한 인물의 모해에 가담하는 인물, 그 모해를 믿는 인물, 여주인공을 돕는 인물 등이 등장하여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고 서사를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서사적 긴장감의 고조와 이완은 서사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 ① 월매가 ‘목을 베’이게 된 상황에 ‘승상이 필마로 달려’온 것은 총렬부인의 처소가 드러날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서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을선이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한 것은 총렬부인과 아이가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냄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이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을선이 ‘복록을 찾’고 ‘금연을 잡아들여’ 심문하는 것은 총렬부인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남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④ 금연이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것은 정렬부인의 계략에 가담한 것으로 총렬부인이 모함에 의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한 것은 왕비가 총렬부인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믿는 데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의 질문에 대해 왕비가 정을선에게 대답한 것으로 보아,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은 ‘사촌 오라비인’ ‘복록’임을 알 수 있다.

①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총렬부인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내용으로, 총렬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통했다는 내용인 왕비의 ‘사연’과 관련이 있다.

② ‘이미 아는 바’는 총렬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통했다는 잘못된 내용이고, 황상에게 올린 ‘상소’는 총렬부인이 정렬부인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③ 승상이 ㉠과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⑤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기에 죽음을 택하였다.

2. 정답 ⑤

남주인공의 어머니인 왕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은 총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진 후이다.

① 누명을 썼던 인물인 총렬부인은 자신의 심리를 ‘구년지수’, ‘칠년대환’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② 총렬부인의 시비인 월매를 문초하던 왕비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결코자 하였다.

③ 누명의 내용은 총렬부인이 다른 남자(남장한 금연)와 사통하였다는 것이다.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총렬부인을 감옥에 갇히게 하려는 정렬부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3. 정답 ②

월매가 왕비에 의해 죽음을 당하기 직전, 승상이 월

매를 구호한 후 월매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을 물었기에 적절한 선지이다.

① 중군장은 원수의 부하 장수이며, 원수가 서응을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도록 한 것도 중군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③ 옥졸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은 인물은 월매가 아닌 금연이다.

④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월매가 아닌 옥졸이다.

⑤ 승상은 왕비가 아닌 금연으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4. 정답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총렬부인의 수난이 정을선의 다른 부인인 정렬부인을 지칭하는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황상에게 상소를 올린 인물은 정을선이 아닌 왕비이다.

② 승상이 위기에서 구출한 인물은 정렬부인이 아닌 총렬부인이며, 총렬부인의 모습을 보고 ‘통곡’한 인물은 승상이다.

④ 정을선의 모친인 왕비에 의해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가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정렬부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은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5. 정답 ⑤

‘그놈’은 금연이 남장한 인물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승상은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라고 말하며 정렬부인의 처벌을 유보하였다.

②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병든 체했음을 금연이 을선에게 고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금섬은 옥에서 총렬부인을 피신시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④ 옥졸들은 시신의 손길이 곱지 않아 옥중의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님을 의심하였다.

6. [정답] ②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제시된 부분에서 전기적인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윗글에서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윗글은 작품 밖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서술자의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윗글에서 인물의 외양과 성격을 자세하게 그리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7. [정답] ④

승상은 군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밝히며,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황상에게 낱말이 아뢰었다.

- ① 승상은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개인사보다 공적 의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A]에서 승상이 가문 내의 문제를 사사로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에서 승상이 황상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A]에서 승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8. [정답] ①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를 통해 정렬부인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윗글에서 공간의 급속한 전환으로 긴장감이 이완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윗글에서 등장인물의 운명을 예고하는 초월적 인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윗글에서 전기적 요소가 활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윗글에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는 찾아볼 수 없다.

9. [정답] ④

㉠, ㉡, ㉢, ㉣은 정을선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은 금연을 지칭하는 말이다.

10. [정답] ③

총렬부인은 정렬부인이 앓는 체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약으로 그녀를 구병하며 곁에 있었다.

- ① 왕비가 월매를 문초하였을 당시에는 총렬부인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 ② 승상은 복록이 이미 죽었기에 옥졸을 잡아들여 옥중 시신이 총렬부인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물었다.
- ④ 정을선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자책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왕비의 행위를 만류하였다.
- ⑤ 승상은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긴 후 필마로 집에 돌아왔다.

11. [정답] ①

월매가 죽기 직전에 승상이 필마로 달려온 것은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총렬부인의 처소가 드러날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을선이 아기를 월매에게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한 것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총렬부인이 위기에서 벗어남을 나타냄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을선은 복록을 찾고 금연을 잡아들여 심문한다. 이를 통해 을선이 총렬부인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금연이 정렬부인이 시킨 대로 남복을 입고 총렬부인의 침소에 들어갔었다는 말을 통해 총렬부인의 방에 있던 ‘그놈’이 금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총렬부인이 정렬부인의 모함에 의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복록이 왕비에게 참소한 것은 왕비가 총렬부인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12. [정답] ④

㉠에는 총렬부인을 억울하게 죽일 뻔했다는 점에서 느끼는 왕비의 충격과 후회가 드러나 있다. ㉣번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를 느끼고 있으므로